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3
----------	------

발의연월일 : 2024. 7. 18.

발 의 자 : 문정복 · 민병덕 · 김문수
박상혁 · 김준혁 · 백승아
김영호 · 진선미 · 김용민
강준현 · 김한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환자의 간호에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2항제1호 중 “의료기관”을 “의료기관(이하 이 항에서 “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u>의료기관</u> 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u><신설></u> 2. ~ 16. (생략) ③ ~ ⑥ (생략)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 <u>의료기관</u> (이하 이 항에서 “ <u>의료기관</u> ”이라 한다)----- ----- ----- 1의2. <u>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 2. ~ 16.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